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2022년 6월 22일 | 선임조사역(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88천 km ² 	인구 615만 명 (2021)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관계 
GDP 634억 달러 (2021) 	1인당GDP 10,311 달러 (2021) 	통화단위 Manat 	환율(U\$기준) 3.50 (2021)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2%인 13.6조 m³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7년부터 집권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에 90%대의 득표율로 재선 및 3선에 성공하여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구축하였음. 2022년 2월 전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전 대통령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3월 조기 대선에서 73%의 득표율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부자 권력 세습에 성공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WTO 옵저버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과 에너지 교역 부문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천연가스 수출을 재개하고 에너지 개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건설하여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을 재개하였음.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을 통해 향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가스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7 수교 (북한과는 1992. 1. 10)

주요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08), 항공협정('09), 과학기술협력협정('15), 이종과세방지협정('16)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3,111	69,000	8,833	자동차부품, 의약품, 자동차, 화학기계
수입	10	5	31	식물성한약재, 신변잡화, 의류, 타이어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95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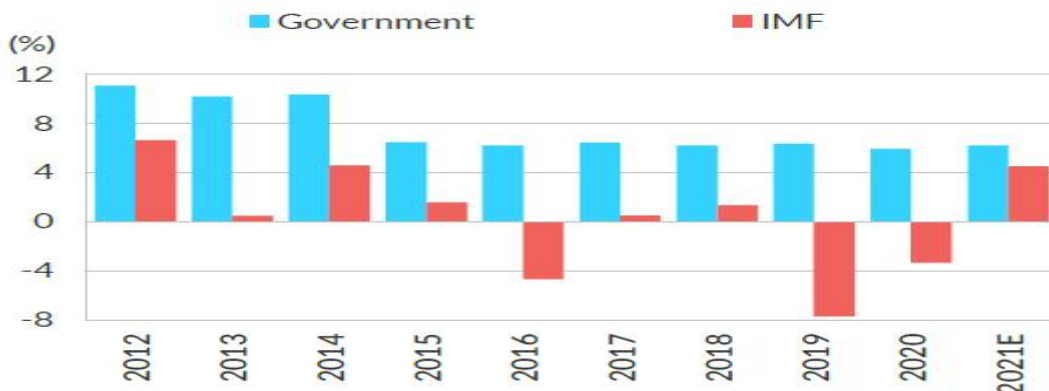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4.7	0.9	-3.4	-3.0	4.9
소비자물가상승률	8.0	13.3	5.1	7.6	15.0
재정수지/GDP	-2.3	-0.2	-0.3	-0.1	-0.1

자료: IMF, EIU

2021년 경제성장률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생산 증가, 내수 회복 등으로 4.9% 기록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감소 등으로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스 등 에너지 수출액이 감소했으며, 제조업 부문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음.
- 2021년에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생산 증가, 내수 회복 등으로 경제가 4.9%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가스 생산은 중국으로의 수출 등으로 2020년 636억 m³에서 2021년 774억 m³로 증가하였음. 또한, 2021년에 가뭄이 심각하여 농업 부문은 저조하였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내수가 회복됨.

[그림 1]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률 추이(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및 IMF)



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IMF 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기록하고 있음. Fitch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계정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EIU도 투르크메니스탄 공식 데이터의 정확성 관련 우려를 지속 표명함.

자료: Fitch.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가격 급등 등으로 두 자릿수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13.3%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5.1%로 둔화되었으며 2020년에도 7.6%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음.
- 2018년에 정부의 수입대체정책 추진에 따른 식료품 수입의 감소로 인한 식료품 부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소비재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한 바 있음.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가격 급등 등에 따라 다시 두 자릿수인 15.0%로 상승하였음.
- 2021년에 수입 제한 및 작황 부진 등으로 식품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정부의 주식(主食)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식품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마나트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0%를 기록함. Fitch는 2021년 투르크메니스탄 식품 가격 상승률을 35.2%,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1.0%로 추정함.
- * 정부 당국은 달러당 3.5 마나트의 고정환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환율에서의 외환 접근은 제한되어 있음. 암시장 환율은 2019년 4월 말 18.8 마나트 및 2021년 1월 초 27~28 마나트에서 2021년 4월 달러당 39마나트로 급등한 이후 2021년 10월 초 달러당 26마나트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 평균 달러당 29.9마나트를 기록함.
- IMF에 의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에도 17.5%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소폭의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축소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의 -2%대에서 2018년 -0.2%, 2019년 -0.3% 및 2020년 -0.1%로 개선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도 -0.1%를 기록함.
- 2020년에는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인해 국영 에너지기업으로부터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21년 임금·연금 인상 등 사회적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0.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됨. 2022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축소 및 균형예산 달성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나, 사회적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균형예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스, 전기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음. 정부는 2017년 10월에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9월에는 2019년부터 유틸리티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결정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2,029	829	882	-3,810	-2,477
경상수지/GDP	-4.4	1.7	1.7	-7.2	-3.9
상 품 수 지	4,055	7,370	7,544	3,303	4,766
상 품 수 출	8,120	9,760	10,539	6,545	8,699
상 품 수 입	4,065	2,390	2,995	3,242	3,933
외 환 보 유 액	9,765	14,794	14,380	16,071	17,971
총 외 채	10,207	11,276	13,205	12,981	12,708
총외채잔액/GDP	22.0	23.2	24.9	24.4	20.0
D.S.R.	13.1	10.5	12.7	18.6	16.6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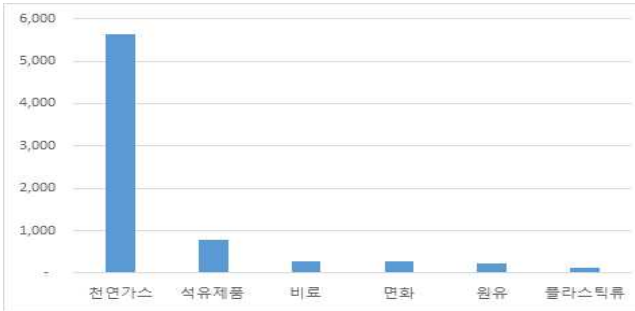
2020년 가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되었으며, 2021년 상품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7.9%나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GDP 대비 -7.2%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8~19년에 대 중국 가스 수출이 2017년 65.3억 달러에서 2018년 79.6억 달러 및 2019년 95.6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된 바 있음.
- 상품수입액은 식료품 수입대체 정책과 정부의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2017년 40.7억 달러에서 2018년 23.9억 달러로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출액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9%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2021년 기준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석유제품, 비료, 면화, 원유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 기계 및 장비, 철강제품, 차량 및 부품, 소비재 등임.

대외거래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의 2021년 주요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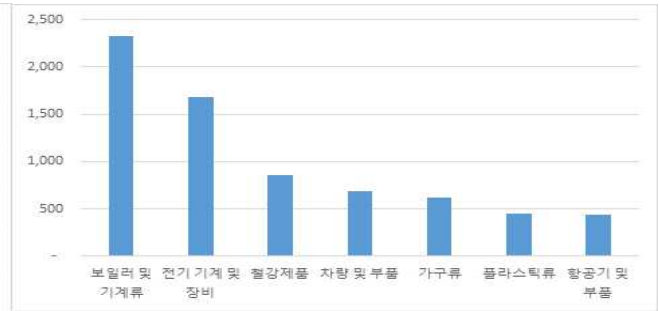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그림 3] 투르크메니스탄의 2021년 주요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 2021년 기준 주요 수출상대국은 중국(70.8%), 터키(9.1%), 우즈베키스탄(8.8%), 조지아(2.6%) 등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터키(36.3%), 중국(18.9%), 독일(7.9%), 이탈리아(6.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함.

[표 1] 2021년 주요 수출상대국 및 상품 수출규모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전체	7,806
중국	5,529
터키	711
우즈베키스탄	689
조지아	205
브라질	117

자료: UN.

[표 2] 2021년 주요 수입상대국 및 상품 수입규모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전체	2,716
터키	985
중국	513
독일	214
이탈리아	178
인도	112

자료: UN.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2021년에 다소 개선 추정

- 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총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로 주요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총수출이 30.7% 증가함에 따라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129.2%에서 2021년에는 96.8%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20년 18.6%에서 2021년 16.6%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GDP 규모가 2020년 532억 달러에서 2021년 634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24.4%에서 2021년에는 20.0%로 개선되는 등 낮은 수준임.
-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약 14.2개월분으로 안정적이며, 단기외채잔액 규모는 외환보유액의 1.4%에 불과한 수준임.

구조적취약성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경제의존도

- 천연가스 수출이 2021년 기준 전체 수출의 7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제 석유제품 및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비중은 87.3%에 달하여 에너지 자원의 국제가격 변동에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음.
- 에너지자원 이외 품목의 수출 비중은 비료 3.7%, 면화 3.6%, 플라스틱 1.8% 등에 불과한 수준임.
- 정부는 에너지 산업 외에 섬유 산업, 정보통신 산업 및 운송물류 인프라 부문 발전 등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지속

- 중국은 2021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대 중국 수출비중은 2021년 70.1% 수준으로 중국 경제의 변동에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상품 수출에서 대 중국 비중은 2010년 36.1%에서 2012년 78.6%로 급등한 이후 70%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동 비중은 2018년 78.5%를 기록한 이후 2019년 77.7% 및 2020년 67.9%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70.1%로 상승함.
- 한편, 2009년 12월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 이후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이후 전체 가스 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의 비중이 99% 수준을 점유하였으며, 2021년에도 97.3%를 차지하는 등 대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 증대, 카타르 등으로부터의 LNG 수입 증가, 대 러시아 가스 수입 증가(2019년 12월 러-중 가스관 개통, 2019년 이후 북극 지역 LNG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이 대체 수입원을 늘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요를 줄일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음.
- 중국의 가스 수입액은 2019년 530억 달러에서 2020년 42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21년 699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음. 한편, 중국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금액은 2019년 96억 달러에서 2020년 6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55억 달러로 감소세가 지속됨. 이에 따라 중국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비중은 2019년 18.0%에서 2021년 7.8%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에 있음.

[그림 4]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중국 가스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그림 5] 중국의 가스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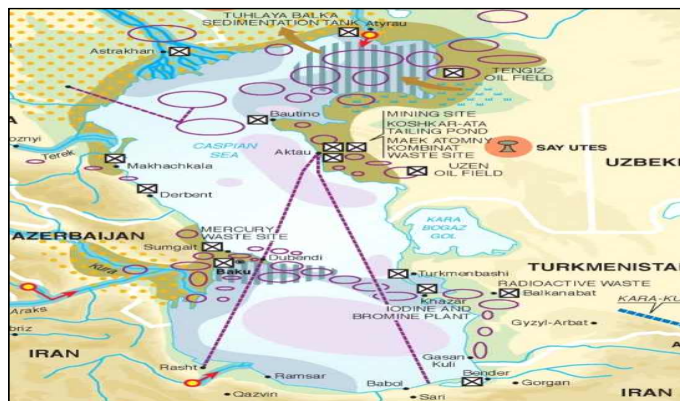
자료: UN.

성장잠재력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와 이를 활용한 가스화학 산업 육성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20년 말 기준 13.6조 m³로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세계 4위 규모임.
- BP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37.4조 m³), 이란(32.1조 m³), 카타르(24.7조 m³)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임.
- 2006년 동부 Mary州 갈키니쉬(Galkynysh) 가스전의 발견과 매장량 확인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2000년 1.8조 m³에서 2010년 13.6조 m³로 증가하였음.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2013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도약하였으며,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2021년 774억 m³에서 2030년에 연 2,500억 m³로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에서 원유 및 가스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스피해의 분쟁 지역에서 에너지 공동개발에 합의하여 향후 이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카스피해 에너지 개발지역



자료: Elena Smirnova, Azat Ataev(2020), Ensuring environmental safety at Garabogaz transport and industrial complex by identifying environmental risks.

- 정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가스화학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지역 키안리(Kiyanly) 가스화학 플랜트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18년 9월에 완공되었으며, 연간 38.6만 톤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8.1만 톤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등을 생산하고 있음. 정부는 투자를 통해 향후 연 137.4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71.1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2년 5월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이소부탄(isobutane) 생산을 위한 기초시설을 건설할 예정임을 밝힘.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9년 6월 수도 아슈하바트 외곽 오바단-데페(Ovadan-Depe) 지역에 가스액화(Gas-to-Liquid, GTL) 공장을 준공·개설하였으며, 동 공장에서 연간 17.9억 m³의 천연가스를 처리하여 60만 톤의 휘발유, 1.2만 톤의 경유 및 11.5만 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힘.

성장잠재력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출노선 확보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8년에 테러로 중단된 TAPI 파이프라인¹⁾ 아프가니스탄 구간 건설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양국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14km의 TAPI 가스관 건설 공사 재개를 위한 안보 협약을 체결함.
- TAPI 가스관은 2015년 12월 착공되었으며, 2020~21년 완공과 2024년 이후 가스 공급 개시를 목표로 건설을 진행해 왔음.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은 2019년 중순에 완공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 구간 건설은 2018년 5월 반정부 무장단체의 테러공격에 의해 중단된 상태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관 완공 후 갈키니쉬 가스전으로부터 파키스탄과 인도에 각각 연 140억 m³ 및 아프가니스탄에 연 50억 m³ 등 연 330억 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임.
- 투르크메니스탄과 인도·파키스탄 간의 양자 회의, 투르크메니스탄 내 탈레반 대표사무소 개설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구간 건설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진전은 기대되지 않음.

[그림 7] TAPI 가스관과 기존의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자료: Fitch

- 중장기적으로 카스피해를 횡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가스관 건설이 계획되고 있음.
- 향후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이 아제르바이잔의 대유럽 가스관(TANAP)과 연결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가스 수출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동 사업 추진시 러시아의 지정학적·경제적 이해에 직접적으로 반하게 되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1)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Pipeline

정책성과

WTO 옵저버 가입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7월 WTO(세계무역기구)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음.
- 2013년 타지키스탄의 WTO 가입 이후부터 WTO 가입을 추진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5월 WTO 옵저버 회원국 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5년 동안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WTO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0년 7월 개최된 WTO 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옵저버 회원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교역 증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등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민관협력법(Law on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민간기업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추진

- 2021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건설, 농업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관협력법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5년임. 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나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제품(서비스)의 구매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공급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음.

UNDP의 인간개발지수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UNDP(유엔개발계획)가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국가별 순위에서 189개국 가운데 111위를 기록함.
- 최근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교육 수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이는 교육기간이 11.2년으로 타지키스탄(11.7년), 우즈베키스탄(12.1년), 키르기즈(13년), 카자흐스탄(15.6년) 보다 낮으며, 평균 수명도 68.2세로 타지키스탄(71.1세), 우즈베키스탄(71.7세), 카자흐스탄(73.6세)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데 따른 결과임.

정치안정

전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가 지속되던 중 중앙아시아 최초로 부자 권력 세습 성공

- 2007년부터 집권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의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2월 사임 의사를 밝힘. 이어 3월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퇴임하였으나, 퇴임 후 상원의장직을 유지하여 국정 실세로 남을 전망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를 상·하원으로 분리하고, 2021년 3월에는 상원을 처음으로 구성하였음.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은 2021년 3월 선거인단의 투표로 상원의원에 선출된 데 이어 4월에는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었음.
- 전 대통령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부총리는 2022년 3월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73%의 득표율로 승리하여 중앙아시아 최초로 부자 권력 세습에 성공함.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임 대통령은 2016년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외무차관, 주지사, 산업건설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1년 2월 부총리(내각부위원장)로 임명된 바 있음.
- 야권 및 언론 통제 등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사회단체, 언론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여당인 민주당 외에 기업인을 대변하는 산업기업가당(Party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농촌 지역을 대변하는 농업당(Agrarian Party) 등이 존재하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은 부재한 상황임.
- 모든 인쇄·전자 매체는 국가 소유이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언론도 부재한 상황임. 인터넷 접근에 대해 검열이 심하고, 다수의 웹사이트 및 앱이 봉쇄되어 있음.

사회안정

공공 서비스 보조금 축소와 공공 부문 임금 체불 등이 사회불안 요인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2년부터 국민들에게 가스·전기 등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2019년부터 재정적인 문제로 이를 중단하여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정부의 부패, 에너지 부문 기득권 및 정실인사 등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수출 수익이 개인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팬데믹 기간 중 빈곤 증가, 식품 등 부족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발생이 증가함.
- 국제 에너지가격의 약세 및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공공 부문 임금 체불 및 대규모 휴직·감원 등에 따라 경제문제로 인한 시위 가능성이 증가함.
- 중앙집권적 통제체제 하에서는 이례적으로 2020년 5월 지역에서 발생한 강풍 및 폭우에 의한 기상 재해에 대한 정부의 재건노력 지체를 비판하는 1천여 명이 참가한 집회가 제2의 도시인 투르크메나바트(Turkmenabat)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짐.

사회안정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 투르크메니스탄은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에서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2022 보고서²⁾에서 사회적 자유도인 Global Freedom Scores가 "부자유"(Not Free)에 해당하는 2점을 기록, 조사대상 중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0~100)에서도 타지키스탄(2/100) 및 아제르바이잔(1/100)과 함께 구소련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 수준인 0/100을 기록함.
- 또한, 'Human Rights Watch' 및 'Prove They Are Alive'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최소 120명이 정치적 목적으로 납치·감금 후 강제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형(刑) 만기종료된 강제실종자 최소 9명의 행방을 알 수 없음.
- * EIU가 평가하는 '2021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은 167개국 가운데 161위로 열악한 수준이며, 이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에 불과함.

법치주의 등 거버넌스 지수는 낮은 수준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중 '법치주의' 부문 순위³⁾에서 2019년 6.73 및 2020년 5.77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규제의 질' 부문 순위에서도 2019년 2.88 및 2020년 2.8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건설업 부문 등 공공 입찰 및 계약의 낙찰 과정에서 부패가 흔한 편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중 '정치적 안정 및 치안' 부문 순위에서도 2018년 45.75에서 2019년 40.57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도 38.21로 하락세가 지속됨.

2) Global Freedom Scores : Political Rights 0/40 + Civil Liberties 2/60 = 2/100

3) 백분위 순위: 0(최저) ~100(최고)

국제관계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 등 협력 지속

-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Gazprom은 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유럽 시장으로의 재판매 수익 저하를 이유로 2016~18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였으나, 2019년 7월 Turkmengaz와 2024년 6월까지 5년 동안 매년 55억 m³의 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며 이는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2020년 12월 러시아 Tatneft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Turkmennebit사와 카스피해 인근의 육상 Goturdepe 석유·가스전에서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하였음. Tatneft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은 2011~19년 29만 톤에서 2020~28년 77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21년 초에는 러시아 Lukoil사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카스피해의 에너지 개발 사업인 'Dostluk' 프로젝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 원유 매장량이 5,000만 톤으로 평가되는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70%, 아제르바이잔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2021년 1월 공동 개발에 합의하였음.
- 러시아 오베르추크 부총리는 2022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교역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2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함.

터키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1년 7월 37백만 달러 규모의 터키 방위·항공 군수품을 수입하는 등 중기적으로 터키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양국은 양자 협력 외에 튀르크평의회(OTS4) 내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는 카스피해 해저 300km의 광섬유 케이블 건설 및 에너지 거래 등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양국의 국영통신 기업인 AzerTelecom과 Turkmentelecom은 2019년 11월 아제르바이잔의 Siyazan과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bashi를 해저로 연결하는 300km의 광섬유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2021년 11월 체결된 아제르바이잔-이란-투르크메니스탄 간의 가스 스왑거래가 2022년 1월 발효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간 15~20억 m³의 가스를 이란을 경유해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할 예정임. 동 가스 스왑거래에 이란이 개입되어 있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출에 대한 이란의 미납대금⁵⁾ 관련 5년 간의 분쟁 타결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 확대, 운송 및 통신,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논의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건설생산부 장관은 2022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및 교역 확대에 합의함.

4)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5) 투르크메니스탄은 2017년 동 미수대금이 18억 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함.

외채상환태도

OECD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수준

- 2021년 12월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44.5억 달러 (단기 190만 달러, 중장기 44.4억 달러)이며 중장기 250만 달러가 연체됨. 2020년 12월 말 단기 200만 달러 및 중장기 50만 달러 연체에 비해 단기 연체금액은 감소하고 중장기 연체금액은 증가함. 연체 비율은 2020년 12월 말 0.04%에서 2021년 12월 말 0.06%로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수준임.
- 연체비율: 0.04%(‘20.12월) → 0.04%(‘21.3월) → 0.05%(‘21.6월) → 0.05%(‘21.9월) → 0.06%(‘21.12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2.01)	7등급(2021.01)
Fitch	B+(2022.02)	B+(2021.08)

OECD 7등급 및 Fitch B+ 등급 유지

- 2020년 OECD CRE 회의에서 경제지표의 신뢰성 미흡과 정책에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 6월 현재까지 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20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Fitch는 2021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평가를 개시하여 B+ 등급을 부여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에 기존 B+ 등급 및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대 중국 가스관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노선을 확보하여 성장잠재력을 가짐. 2021년에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생산 증가, 내수 회복 등으로 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전체 수출의 87.3%)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며, 최대 천연가스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비중(전체 수출의 70.1%)도 취약점으로 평가됨.
- 2021년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총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로 2021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96.8%로 하락하였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0%로 개선되었으며 외환 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14.2개월분 규모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유지되고 있음.
- 2007년부터 장기 집권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통치체제를 지속하던 중 2022년 2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전 대통령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2022년 3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중앙아시아 최초로 부자 권력 세습에 성공함.